

일본 학계·시민사회도 램지어 비판 성명

“전문가 심사 안 거치고 선행연구 무시한 위안부 논문은 엉터리”

“학술지 게재 철회해야”…14일 문제점 분석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첫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10일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 온라인판에 게재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비판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활동가’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위안부를 공창(公娼)과 동일시하는 램지어의 논문은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에 대해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어 문헌을 참고하고 있지만 취급이 자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면서 3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우선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소는 공창제도와 달리 일본군이 직접 지시

하고 명령해 설치했으며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접 징모(徵募)하거나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덧붙였다. 창기(娼妓)나 예기(藝妓), 작부(匠婦)였던 여성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가 주로 일본인의 사례에서 일부 발견됐지만, 램지어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여성은 공창제도와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나 폭력, 인신매매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 이미 방대한 연구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성명은 그런데도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이해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공창제하에서도 예창기(藝娼妓) 계약은 실제로는 인신매매이고,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창기 등이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인 것처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을 속박하던 가부장제 권력에 대한 관점이 결여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가 성노

예제였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돼 있음에도 램지어 논문에선 이런 연구 성과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말단업자와 당사자 여성의 양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의 저술 차원을 넘어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고 싶어 안달하는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배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료(동료 연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 램지어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 뒤 게재를 철회할 것을 IRLE에 촉구했다.

또 일본에서 확산하는 위안부 실체 부정론에 대해선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일본, 한국, 북미 등 국경을 넘어서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 작성에 동참한 ‘파이트 포 저스티스’ 등 일본 시민·학술 단체들은 오는 14일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여는 등 위안부 실체를 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맞서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IRLE 온라인판에 램지어 논문이 게재되고 이를 산케이신문이 올 1월 31일 처음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일본 학자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첫 학술 행사다. /연합뉴스



울면서 끌려가는 미 텍사스 국경 남미 밀입국자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페니타스에서 9일(현지시간) 어린 자녀를 동반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국적의 남미 밀입국자들이 울면서 미 국경수비대에 끌려가고 있다. 이들은 뗏목을 타고 국경지대에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넌 뒤 덩굴 속에 숨어있다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밀입국 단속 작전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브라질 변이엔 효과... 남아공 변이엔 효과 적어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WP는 이번 연구로 화이자 백신을 지속해서 접종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화이자와 그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 과학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1억 회분과 벨기에 안센 백신 3천800만 회분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부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지난달 말 화이자 백신의 등록을 승인했다.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중국 시노백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나 공식적인 등록은 화이자 백신이 처음이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남아공에서 발견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더힐은 지난해 말에 등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는 세계적인 임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5천만명 봤다...해리왕자 부부 인터뷰 대박

CBS 방송 “금주 재방송 예정”

전 세계적으로 5000만명이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한 해리(36) 왕자와 메건 마클(39) 부부의 인터뷰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CBS 방송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천910만명이 TV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이 인터뷰를 지켜봤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만 1780만명이 시청, 오락특집물 중에서는 지난해 2월 오스카 시상식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인터뷰는 현재도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이용 가능해 시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인터뷰가 ‘대박’을 치자 CBS는 오는 12일 오후 8시에 재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BS는 인터뷰 라이선스 구입 비용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하프 프로덕션에 700만달러(79억원)에서 최대 900만달러(101억원)를 지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CBS는 미국 TV 방송 황금시간대인 일요일(7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인터뷰를 내보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일 ITV가 인터뷰를 방송했다. 흑백 혼혈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마클은 2018년 해리 왕자와 결혼했다. 사전 녹화된 인터뷰는 해리 왕자 부부와 친분을 쌓은 미국 ‘토코쇼의 여왕’ 윈프리가 진

행했다. 해리 왕자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마클은 이번 인터뷰에서 결혼 당시의 상황부터 여러 뒷얘기를 소상히 털어놓았다. 특히 2019년 자신의 아들 아치가 태어났을 때 왕실 사람들이 피부색이 어두울 것을 우려해 아들을 왕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마클의 인터뷰 이후 영국 왕실에 대한 비난과 해명 요구가 나오자 엘리자베스 2세(94) 영국 여왕은 성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 특히 인종 관련된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일부 기억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영국에서는 마클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한동안 이번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8일 아치가 찰스 왕세자의 차남(해리 왕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17년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5세는 국왕의 증손자의 경우 왕세자의 장남의 첫째 아들에게만 ‘왕자’ 칭호를 준다는 내용의 왕실 칙령을 발표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2년 12월 해리 칙령을 개정했고, 이때부터 왕세자의 장남의 자녀들은 모두 왕자 또는 공주로 불릴 수 있다. /연합뉴스



불 타는 중국 스자칭의 26층 빌딩

9일 중국 허베이성 스자칭에 있는 26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오랜 세월 흘러도 꼭 챙기는 나라” 마스크 기증 행사...美 참전용사들의 눈물

미국 하와이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전달받고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회 하와이본부 회원 4명은 9일(현지시간)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석인)이 마련한 마스크 기증 행사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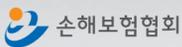
이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참전용사를 챙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감격했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국가보훈처 제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눈물을 흘렸다.

에이스 케일리노베호 부회장은 “6·25 전쟁 소식을 듣고 17살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갔다”며 “제가 참전했던 또 다른 전쟁인 베트남전보다 한

국민이 더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강에 그렇게 많은 다리가 세워진 것을 보고 놀랐다”며 “한국인들이 현재의 경제적 풍요와 위상을 얻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토미 타하라 총무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라며 “참전 기간 급여나 진급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고국을 위해 희생하며 미군을 도와준 당시 카투사들에게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와이 현지의 약천후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허버트 슈라이너 회장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총영사관에 전했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